

이재명 후보, 명확행 시리즈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성과 소개 “공공과 민간을 잇는 취업 징검다리로 고용절벽 해소”

- 2022년 1월 말 기준 249명 취업 성공·기업엔 비용 지원, 구직자엔 일 경험 통한 취업 연계
-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 추진” 일자리 문제 해결 의지
피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1일 SNS를 통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소개하며 “일자리가 곧 경제고 일자리가 곧 복지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의 ‘명확행’ (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0번째 시리즈인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취업 연계가 가능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을 발굴해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업무 경험 등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 후보는 “보통 국가나 지자체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공공일자리 창출을 떠올리기 쉽지만 단순·단기 일자리로는 한계가 명백하다”며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이것이 민간 일자리 시장과 연계되어야 지금의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의 핵심은 기업도 구직자도 ‘윈윈’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구직자는 월급을 받으며 일에 대한 경험도 쌓고 진로 상담, 적성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간 인건비 월 247만 원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시 4개월간 인건비와 교육훈련비까지 지원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다.

그 결과 올해 1월 현재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한 249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숫자보다 값진 성과는 적성을 찾고 자신의 일을 발견한 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 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추진하겠다” 고 강조했다.

<p>글로벌통역사로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 경기도의료원</p> <p>장검다리일자리사업 참여로 공공의료에 필요한 통역인력을 지원받아 통역서비스를 상시적으로 운영.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통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됨</p>	<p>직무경력 쌓아 취업성공 경기문화재단</p> <p>전시리모델링 직무에 참여자가 참여하여 박물관 재개관을 성공적으로 진행. 참여자는 '박물관 재개관'이라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직무에 참여하였고 해당직무 경험을 살려 유관기관으로 취업성공</p>
<p>체계적인 OJT로 직무역량 레벨업 경기도일자리재단</p> <p>참여자에게 전담직무를 배정하고 OJT부터 직무운영까지 체계적인 직무지도를 진행. 참여자의 직무역량 제고를 통해 타 공공기관 취업성공</p>	<p>취업선배의 멘토링으로 하드캐리 경기도청소년수련원</p> <p>첫 근무일에 멘티와 멘토가 '만남일지'를 작성하고 월 1회 정기적으로 퇴근 후 대화의 시간을 갖으며 경기도청소년수련원만의 멘토링 활용을 진행. 참여자의 취업역량제고를 통해 민간기업으로 취업성공</p>

(사진출처 : 잡아바 <http://naver.me/FGyOBWF3>)

<첨부 : SNS 메시지 전문>

SNS 메시지 전문

<취업 앞으로 경력 제대로!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첫걸음, 공공과 민간을 잇는 취업 징검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대 부디 물속에 빠지지 말고 나를 던고 힘차게 건너가라.” 정호승 시인의 시 ‘징검다리’의 한 구절입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들, 경력단절에 힘들어하는 구직자들이 고용절벽의 물에 빠지지 않고 힘차게 취업의 문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추진한 것이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입니다.

보통 국가나 지자체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면 공공일자리 창출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단순·단기 일자리로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구직자들에게 실질적인 일 경험을 제공하고, 이것이 민간 일자리 시장과 연계되어야 지금의 고용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경기도 내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서 취업 연계가 가능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여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업무 경험 등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기업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업도 구직자도 ‘윈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직자는 월급을 받으며 일에 대한 경험도 쌓고 진로 상담, 적성교육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간 인건비 월 247만 원을 지급하고, 정규직 전환 시 4개월간 인건비와 교육훈련비까지 지원하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게 올해 1월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한 249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숫자보다 값진 성과는 적성을 찾고 자신의 일을 발견한 분들이 그만큼 늘었다는 것입니다. 용인에 거주하던 A씨는 징검다리 사업을 통해 경기도시공사에 배치됐고, 전공인 건축공학을 살려 업무 역량을 키운 결과 6개월 만에 주택관리공단에 입사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임을 배우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경기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서비스 기능 또한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일자리가 곧 경제이고, 일자리가 곧 복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없는 저성

장’ 때문에 더욱 절감하는 현실입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실천으로 구현하겠습니다.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10.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 #이재명은_했습니다.